

해남군, 잇단 공모 선정 ‘원도심 경제활력’

여성기업 마케팅·상품 개발·정보화 등 소상공인 지원

지속가능 상권 육성 성과…“특색 살린 브랜드 육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이 각종 연계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9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4월 전년도 주관한 여성 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땅끝초박당’이 선정돼 99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을 시작으로, 6월 ‘달걀초코’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선정돼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여성 소기업 마케팅사업은 브랜드 경쟁

력 강화와 제품 포장재 제작, 온라인 마케팅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하며,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공동브랜드 개발과 공동마케팅, 판로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협업 기반을 구축하고 상권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7월에도 공모사업 선정이 이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사업’에 달걀초코가 선정돼 7200만원 규모의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생활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구축해 원도심 상권



해남읍 원도심 활성화 행사 달달야행 모습.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청

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바이오진흥원의 ‘해남 김·고구마 대박상품개발 지원사업’에는 피낭시에와

달달한해남이 각각 선정돼 업체별 6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해남의 대표 특산물인 김과 고구마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해 지역 농수

산물의 상품성과 브랜드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2026년 찾아가는 1대1 디지털 교육사업’에 더베스트수산, 연아네시래기국밥, 아름다운베이커리, 화원요, 달걀초코, 달달한해남, 아롱카페, 함평홍어등 8개 업체가 선정돼 전문 수행기관과의 매칭을 마쳤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이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특화상품 개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상권 육성 사업으로 확대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해남원도심 상권활성화 추진단은 올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발굴, 사업계획 수립,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상권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소상공인의 사업 참여와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지역경제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공모사업 발굴과 사업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며 “앞으로도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브랜드를 육성하고, 디지털 전환과 판로 확대를 지원해 소상공인이 성장하고 원도심에 활력이 넘치는 상권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완도 반값 여행’ 4차 조기 마감

1차부터 누적 3만3872명 참여

‘완도 반값 여행’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9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4차 사전 신청을 접수, 신청자가 몰리면서 예산 소진으로 이를 만에 조기 마감됐다.

1~3차도 신청 인원이 많았지만 4차 조기 신청 마감으로 관광객들의 완도 여행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확인했다.

‘완도 반값 여행’은 관광객이 숙박·식당·카페 이용, 특산물 구매 등 여행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의 절반을 완도사랑상품권(모바일)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여행 경비를 지원받기 위한 최소 소비 금액은 10만원이다.

지원 금액은 개인(1인) 기준 최대 10만원, 청년(19~34세)은 최대 14만원, 팀(2인 이상)은 최대 20만원, 가족(최대 5인)은 최대 50만원이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을 오기 최소 1일 전 반드시 ‘완도 반값 여행’ 누리집에 사전 여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기준 ‘완도 반값 여행’에는 총 3만3872명이 참여했으며, 41억9000만원의 소비 유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관광객들의 지역 내 소비는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8월 말쯤 반값 여행 5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완도=김해국 기자 knk1831@



일본 간자키고등학교 바바 노부타카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은 최근 영암을 찾아 영암남주고등학교와 교류 협의를 진행하고 지역 교육·문화 자원을 둘러봤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청

영암, 일본 간자키고와 글로벌 인재 육성 ‘맞손’

남주고 방문…교육 프로그램·문화 교류 협력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과 일본 사가현 간자키고등학교가 자매학교 결연을 앞두고 교육 교류 협력을 본격화했다.

9일 영암군에 따르면 일본 간자키고등학교 바바 노부타카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은 최근 영암을 찾아 영암남주고등학교와 교류 협의를 진행하고 지역 교육·문화 자원을 둘러봤다.

이번 방문에는 영암군과 영암교육지원청, 영암남주고 관계자 등 15명이 함께했다.

이번 방문은 오는 11월 추진 예정인 ‘한·일 국제교류 자매학교 결연 및 문화제

함’ 사업을 앞두고 양 학교의 교육환경을 살펴보고 학생 교류 프로그램과 자매학교 운영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은 영암남주고의 교육과정을 살펴본 뒤 왕인박사유적지와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영암도기박물관 등을 찾아 영암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다. 학생 교류 프로그램에 활용할 교육 콘텐츠와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영암군과 일본 간자키시는 왕인박사를 매개로 지난 2008년부터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해 우호교류협약 체결 이후 교류 교류도 지속하고 있다. 이번에는

기존 중학교 교류에 이어 영암남주고와 간자키고가 새롭게 자매학교 결연을 추진하며 교류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영암군은 올해 중학생들의 일본 역사·문화 체험에 이어 오는 11월에는 간자키시 학생들을 초청해 학교와 지역 문화를 함께 체험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진석 영암군 인재육성체육과장은 “이번 방문이 양교가 신뢰를 쌓고 지속 가능한 교육 교류를 이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강진, 폭염기간 노인일자리사업 ‘실표’

실내활동·안전교육 전환…어르신 안전관리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계속되는 폭염으로부터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실내활동을 중단하고 실내활동과 안전교육으로 전환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9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실외활동에 참여하던 어르신들을 실내활동으로 전환하고 폭염 대응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폭염안전 5대 예방수칙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과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해 참여 어르신들이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앞서 지난달부터 폭염에 대비해 선제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폭염이 심한 시간대를 피해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참여자들에게 생수나 챙이 넓은 모자, 쿨로시, 넥쿨러 등 폭염 예방물품을 지원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

진도 ‘홈스쿨링 뇌충충 업’ 프로그램 운영

경증 치매환자 돌봄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은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주 1회 ‘홈스쿨링 뇌충충+업(UP)’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진도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치매센터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치매예방관리 지원사업’의 하나로 총 10회 진행되며, 치매안심센터까지 방문하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마을로 직접 찾아

가 경증 치매환자의 인지기능을 향상하는 서비스다. 프로그램은 65세 이상의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건강과 정서 검진, 뇌진경 체조, 국어와 산수 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올해 개발된 체육 지도 프로그램을 추가해 대상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어르신의 치매 중증화를 예방하고 인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실손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대 5천만원

1332 신고전화 국번없이

실손보험사기 집중신고 기간 2026. 1. 12. (월) ~ 10. 31. (토)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병원관계자 5,000만원 · 브로커 3,000만원 · 환자 1,000만원

보험사기 유인·알선 권유 행위

미용 성형시술 후 허위청구 행위

진료비 영수증 조작기 행위

허위 입·통원 행위

경찰청

금8검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